

## 기해년 태사묘 춘향대제 봉행

안동태사묘관리위원회(위원장 장숙진)가 주관하는 기해년 태사묘(太師廟) 춘향대제(春享大祭)가 3월 21일(음력 2월 15일 中丁日) 오전 10시 안동시 태사묘길(북문동) 태사묘우(太師廟宇)에서 안동권씨, 안동김씨, 안동장씨 등 삼성(三姓)의 참제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하였다.

이날 참제원 분정(分定)은 송보당(崇報堂)에서 김시일씨가 담당하여 현관(獻官)과 재관(祭官), 참제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시간 30분에 걸쳐서 분정례(分定禮)를 마쳤다. 분정은 초헌관(初獻官) 안동시장 권영세, 아헌관(亞獻官) 장숙진, 종헌관(終獻官) 김효진, 집례(執禮) 권용주, 축(祝) 권영체, 김교동, 장희진씨가 각각 담당하여 2시간 30분에 걸쳐서 흐트러짐 없이 엄숙하게 춘향대제를 봉행하였다.

안동지방은 어제 저녁부터 봄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춘분(春分)인 춘향일 새벽까지 비가 오락가락하였다. 주최 측은 춘향일 당일 비가 오지 않을까 걱정하였으나 다행히 비가 전연 오지 않아서 안도의 한



숨을 내쉬면서 기쁨이 배가되었다. 이날 현관, 축관, 재관위원, 참제원 모두는 관복(冠服)과 도포(道袍)를 입고 향사(享祀)를 봉행하였으며 안동문화방송(MBC)은 특집 프로에 사용하기 위해 태사묘 춘향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을 하기도 했다.

제례를 마친 현관, 축관, 재관위원, 참제원들은 송보당 앞 잔디밭에서 단체로 기념촬영을 했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태사묘관리위원회 권영화 사무국장의 사회로 송보당에서 <2010년도 태사묘대당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는 도유사(都有司) 인사, 위원장 인사, 경과보고, 2018년도 결산보고, 기타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초헌관을 맡았던 안동시장 권영세 도유사는 인사말을 통해 “날씨도 고르지 못하고 바쁘신데 불구하고 춘향제에 참석하여 주어서 대단히 고맙다”고 인사한 후 “앞으로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태사묘 주변을 말끔히 정비하고 아울러 소공원도 조성하는 등 정비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숙진 태사묘관리위원회는 인사말에서 “태사묘 안에 있는 화장실이 낡고 비좁

아 화장실을 수리하는 등 ‘행복안동’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권영화 사무국장은 작년 12월 3일 국립중앙박물관전시 개막식에 14명이 참석하는 등 작년 한해동안 일어난 각종 일 22건을 경과 보고했다. 이어 감사보고, 재산현황, 2018년도 결산보고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신하였다.

기타 토의에서 장숙진 위원장은 현재 태사묘의 회계연도는 ‘춘향일로부터 익년(翌年) 춘향일 전일 까지로 정한다’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개정하였다. 또 오는 5월 14일 오후 1시 한국국학진흥원 대강당에서 경북대 김명자 박사 등 대학교수 5명이 “안동의 삼태사와 지역사의 전개”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당회의가 끝나자 송보당에서 음복례(飲福禮)를 마친 참제원들은 동재(東齋)와 서재(西齋)로 나누어 비빔밥으로 점심을 먹으면서 환담을 나누다가 헤어졌다.

〈보도부장 권행건〉



전국 지역종친회장협의회(회장 권영호) 임시회의 및 단합대회가 9월 5일과 6일 이를 동안 권영호 회장을 비롯하여 권길상 고문, 권주연 감사, 권태형 간사, 권태호 충청북도 종친회장, 권태복 금천종친회장, 권경관 금산종친회장, 권오한 제주종친회장, 권건중 대종회 사무총장 등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전주·원주종친회관에서 개최되었다. 권영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역종친회장님들께서 협의회 발전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멀리 몇千里마다 하 않고 전주에 오시고 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

특히 본 단합대회 준비를 위해 애쓰신 권기태 전주·원주종친회장님과 권오신 전 전주·원주종친회장님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협의회 발전은 물론 안동권문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권태복(부호장공과 33세) 금천종친회장은 정기총회 때마다 얼굴을 벚히는 일이 발생해 오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서로 예의와 도리를 지켜 후손들에게 존경받는 어른의 모습을 물려주자고 호소하며 “세 사람 중에도 은사가 있으니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인격을 존중하자”는 준비된 유인물을 배포하기도 했다.

협의회 회원들은 첫날은 전주 한옥마을을 둘러보며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과 기품을 만끽했다. 권오신 전 전주·원주종친회장은 전주 시내 곳곳을 열성적이면서도 자세하게 안내하였다. 회원들은 권오신 전 회장의 해설이 너무 좋았다고 이구동성으로 친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를째 9월 6일에는 김제에서 화원군(花原君, 북야공파 14세 權仲達) 시제를 봉행하였다. 제물(祭物)은 권오초 종친께서 정성스럽게 마련하였고 시제가 끝난 후 수육과 송편 등 푸짐하게 준 비한 음식으로 점심을 함께 했다.

〈편집국장 권행완〉



## 대구종친회 명사초청 보학(譜學) 강좌 개최



안동권씨 대구종친회가 지난 28일 18시 30분에 대구향교 소강당에서 “나의 뿌리 나의 고향”이라는 주제로 명사 초청 강좌를 개최했다. 대구종친회는 현 권영진 대구 광역시장과 권영준 안동대학교 명예교수를 초청 강좌로 모셨다. 이 날 강좌에는 150여명의 권문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족보가 크게 발달했던 조선시대에는 가문의 배경이 사회생활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했고 또 양반의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교양인이라면 누구나 각 씨 족보에 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했다.

특히 한국의 보학은 송·원대에 그곳의 족보를 모방하기 시작한 것이 효시로 보이며 《연려실기(燃藜室記述)》 별집에 의하면 1562년(명종17)에 간행된 《문화류보(文化柳譜)》가 최초라 하였으나 이보다 앞서 안동권문에서는 1476년 한국

최초로 성화보를 만들어 족보의 효시가 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안동권문은 누구나 자긍심을 가져도록 좋다고 말했다. 성화보 이후 보학이 매우 활발하여 만성보(萬姓性譜)·대동보(大同譜)·잡영보(簪纓譜)·동국세보(東國世譜) 등과 같은 이름의 갖가지 종합보나, 팔세보(八世譜)·십세보(十世譜)·팔고조도(八高祖圖) 같은 가계보가 발달했다고 말했다.

권영준 안동대학교 명예교수는

한(漢)나라 때에 이르러 사마천(司馬遷)은 3대세표(三代世表)를 만들어 씨족의 연원을 밝혔으나 반고(班固:後漢의 史學者) 이후의 보계는 기록하지 않았다.

그러나 후한의 등씨(鄧氏)가 지은 관보(官譜), 응소(應邵)가 지은 씨족(氏族) 1편, 왕부(王符)가 지은 《잡부론(潛夫論)》에 성씨(姓氏) 1편 등이 뒤를 이었으며, 위(魏)·진(晉) 유품(遺品) 연간에는 가보(家譜: 족보)를 만드는 일이 성행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씨족·별족별로 많은 족보가 만들어졌으며 이를 족보 전반에 걸친 계보서로 《첨구씨보(青丘氏譜)》·《잡영보(簪纓譜)》·《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 있다고 설명했다.

권오섭 대구종친회장은 “보학(譜學) 강좌는 우리 안동권문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우리들의 자랑이자 자존심이며, 나아가서는 우리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이번 강좌에 유익한 시간을 함께 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을 전했다.

〈편집국장 권행완〉

## 檢校公派 派祖秋享祭 奉行 및 定期總會 案內



### 謹啓 時下

중추지절에 파친님들의 평안을 앙축하옵니다.

검교공파 파조추향제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고자 하오니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파친님들의 많은 참제를 희망하옵니다.

※ 추향제 봉행 후 정기총회를 壇前(단전)에서 개최합니다.

♣ 추향제 일시 : 2019年 10月 17日(陰曆9月19日 中丁日) 木요일 오전 10시

♣ 추향제 장소 : 경북 상주시 공검면 율곡2리 파조단소(주소 : 경북 상주시 공검면 율곡2길 114-14)

安東權氏檢校公派宗會 會長 權泰康